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 159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시편 119편 153-160절

시편 119편은 8절씩 22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단락은 「아래후」 「벳트」 (영어로 말하면 AB) 같이 히브리어 문자의 각 글자가 여덟개씩 완벽하게 머릿부분에 나열되 각단락을 「아래후 시편」 「벳트 시편」 이라는 식으로 부릅니다.

시편 119편은 전편 176편중에서 가장 장대한 긴 시편입니다만, 주제는 매우 분명해, 중심 테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인 존재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절의 문장에는 「율법」「증거」「법도」「율례」「명령」「심판」「말씀」「주의 말씀의 강령」「길」등의 열가지의 단어들 연달아 교대로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53절에서 160절은 「레슈 시편」으로, 각절의 머리부분에는 모두 히브리어의 글자, 영어로는 R 에 해당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153절) 직역하면, 「나의 비참함을 보시고 건져주소서」입니다. 시인은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것을 「봐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비참함에서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비참한 상황에 있지만, 시인은 「주의 율법(가르침, 토라)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풍에 돛단듯이 잘나가는 때가 아닌 역경의 때에도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154절) 「나를 변호하시고」를 직역하면 「나의 소송을 소송하시고」입니다. 「구하사」의 「구하다」는 「도로 사오다」의 의미로, 보아즈가 릿을 그렇게 한 것처럼,

가까운 친척이 대가를 지불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자(상속지)를 「도로 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동시에 죽음을 당한 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근친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시인은 자기가 지금 놓여져 있는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제 삼자와 같이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하늘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속자」 또는 「피의 복수자」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전부 책임져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싸움을 전면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부채를 포함해서 전생애를 책임져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비참함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대속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라는 기도는, 이후 두번, 전부 세번 반복됩니다.
「살리소서」라는 말에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나 죽음에 직면해 있거나,
아니면 벌써 죽을 지경이 됐거나, 빈사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살리소서」라고 세번이나 기도합니다.

자신도 이미 팔려 비참한 죽은 상태에 있으니,
그 상태에서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을 치러 「다시 도로 사」주시는 「속량의 주, 대속해 주시는 주」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주」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155절)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것이 됨으로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집」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율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생활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 하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맘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만큼 구원과 생명에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악인」을 언급하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156절 전반부)

「긍휼」은 어머니의 「태」라는 말에서 생겨난 단어로,
배 아파서 나온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절실한 부모의 애정을 의미합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멸망의 늪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기 자식을 버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를 생각해 낸 시인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156절 후반부)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의 직역은 「당신의 심판에 따라」로,

「심판」은 재판, 판결, 그 집행, 판례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에 의해서 자신이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악인」이 지배하는 사회를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하심으로,

「악인」에게 부당하게 억압당한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표리일체와 같습니다.

앞에서 본 「대속주」의 또 다른 측면,

즉 「다시 사 오다」라는 뜻보다는 「피의 복수자」로서의 측면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157절)

「많으나」는 전절의 「많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므로」,

동시에 「나를 대적하는 자」 또한 「많은」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서 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핍박하는 자와 대적들입니다.

그것도 한 두명이 아니라, 많은 대적들과 핍박하는 자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핍박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디모데후서 3:12)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158절)

「거짓된 자들」은, 부정하게 계약을 깨는 자, 신뢰할 수 없는 자, 배신자를 의미합니다.

「핍박하는 자」나 「대적들」보다 가까이 있으면서 시인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그「거짓된 자들」을 보고,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기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시인은 「악인」「나를 핍박하는 자」「나의 대적」「거짓된 자」와는 정반대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하나님의 「공휼」을 안 시인은,
이에 보답해, 자신도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악인」「나를 핍박하는 자」「나의 대적」「거짓된 자」에게 둘러싸여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주의 법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159절) 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살리소서」라는 기도가 이것이 세번째입니다.
앞에서는 「주의 말씀대로」(154절),
그 뒤에서는 「주의 규례들에 따라」(156절) 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생생하게 드러난 것이 「규례」이며,
그리고 어떤 때에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을 살린다고, 시인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좋고 나쁨으로 「은혜」가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모두 「악합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직 「공휼하심으로」,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고,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에 의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의 은혜입니다.
이것없이 인간은 구원받을 수도 없으며, 이것이 있기에 어떤 인간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160절)

「진리」라는 의미는 「신뢰할 수 있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은 어떤 것도 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변을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뿐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맺습니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규례」는 앞의 156절에서 본 규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악을 심판하고 정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에 시인은 「영원히」라는 말로, 최후의 심판을 똑똑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신앙세계였습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에 둘러싸여 있어도 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소용이 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빈사상태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죽음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최후에는 이 죄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정산하시는, 영원한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냥「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후에 심판하시고, 시인을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시인의 영혼을 짊어지시고, 시인의 생명을 전부 책임져 주십니다.